

美-대만 관세협상 마무리 단계 삼성, 파운드리사업 시험대 올라

TSMC, 미국 내 영향력 확대 전망
삼성, 차세대 공정 수율확보 총력
“안정적인 고객사 수주가 핵심 과제”

미국과 대만이 관세 인하를 대가로 TSMC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관세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미국 시장을 둘러싼 삼성전자 파운드리 경쟁 환경에도 변화가 주목된다.

TSMC의 미국 내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차세대 공정 수율 경쟁력 확보가 격차를 좁힐 핵심 과제로 꼽힌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 간 관세 협상이 현재 법률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이 대만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15%로 이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대만의 대미 투자 총액수와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TSMC의 미국 증설 계획이 삼성전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된 TSMC 칩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삼성전자의 수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따른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370억달러(한화 약 51조원)를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의 자국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TSMC의 애리조나 투자 확대 역시 이러한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 최소 5개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미 첫 번째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두 번째 공장 건설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의 조기 안착과 함께 TSMC보

다 앞선 차세대 공정 게이트올러라운드(GAA) 수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nm) GAA공정에서 TSMC보다 1년 앞서 양산에 들어갔으나 초기 수율 문제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2나노 GAA공정 기술 안정화에 성공하면서 웨컴 등 대형 고객사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2나노 GAA공정은 TSMC의 2나노 공정과 달리 트랜지스터를 사면에서 감싸는 구조로 전력 효율과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TSMC의 증설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만큼 향후 어떤 규모와 일정으로 투자가 진행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TSMC가 첨단 공정을 확대하며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역시 생산능력 확대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고객사 수주가 경쟁력을 가를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전자 모델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시연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SDV 이노베이터 어워즈’ 수상

모빌리티 솔루션 기술력 입증

LG전자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분야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글로벌 자동차 미디어 ‘모터트렌드’가 주관하는 ‘2026 SDV 이노베이터 어워즈’를 2년 연속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모터트렌드 SDV 이노베이터 어워즈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온 인물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 4회를 맞았다.

LG전자 VS사업본부 디스플레이개발리더 김경락 상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단순한 표시 장치를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의 핵심인 지능형 인터페이스

이스로 발전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선구자’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에는 ‘벤더블 무빙 디스플레이’를 통해 구현한 ‘사이테크’가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화면 아랫부분을 뒤로 접어 가리고, 디스플레이가 필요할 때는 펼쳐서 대형 화면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차량 내 디자인 완성도와 기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디스플레이는 향후 양산되는 프리미엄 완성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LG전자는 SDV에서 인공지능 중심 차량(AIDV)까지 전장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분야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현대로템, 로봇·수소 중심 조직개편

방산 등 전 영역에 혁신기술 접목
기능 중심 조직 슬림화… 효율성 개선

현대로템(대표이사 이용배·사진)은 신사업 리더십 확보를 위해 로봇사업과 수소사업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체계를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산업계가 미래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축으로 인공지능(AI)과 차세대 에너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무인화, AI, 수소에너지, 항공우주 등 차세대 혁신 기술을 육성해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디펜스솔루션(방산) 부문에서 유·무인 복합 지상무기체계와 항공우주 사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차세대 전차·장갑차·다목적 무인차량(HR-세르파) 라인업에 AI 기반 자율주행과 군집 제어 능력을 탑재하고, 다족보행로봇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방산 분야



무인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항공우주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우주수송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35t급 메탄 엔진 개발에 국내 최초로 착수했다. 연소 시 그을음 발생이 적어 재사용에 유리한 메탄엔진은 데이터·AI 기반 재사용 발사체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레일솔루션(철도) 부문은 AI 결합 상태기반 유지보수 시스템(CBM)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AI 기반 관제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AI 지능형 CCTV 자체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에코플랜트 부문은 항만 물류 자동화 핵심 설비인 항만무인화송차량(AGV) 등 AI 기반 스마트 물류 연구개발(R&D)과 상용화를 확대하고, 로봇·수소 사

업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로봇&수소사업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로봇영업팀·로봇연구팀을 신설한다. 기존 신성장추진팀과 수소에너지PM팀은 각각 R&H(Robot & Hydrogen) 사업기획팀과 R&H PM팀으로 변경해 미래 산업계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 또 유·무인 복합체계센터와 로보틱스팀은 각각 AX(인공지능 전환)추진센터, AI로봇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공우주개발센터 내 항공우주시스템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글로벌 불확실성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능 중심 조직을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했다. 조직은 기존 37실·15센터·186개 팀에서 35실·14센터·176개 팀으로 슬림화해 업무 중복을 줄이고 조직 운영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HD건설기계, 대형 굴착기 120대 수주

에티오피아 광산 개발업체 공급계약

HD현대의 건설기계 사업 통합법인인 HD건설기계가 출범 후 첫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HD건설기계는 최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광산 개발 업체들과 총 120대 규모의 대형 굴착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급 장비는 디벨론(DEVELON) 36톤급 굴착기 70대와 현대(HYUNDAI) 34톤급 50대로, 에티오피아 금광 채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HD건설기계는 지난해 에티오피아 굴착기 시장 점유율 80%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과 고객 서비스를 통해 현지 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하

고 있다.

아울러 HD건설기계는 이날 공시를 통해 2026년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 등 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여의도 한국고직원공제회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HD건설기계는 2026년 매출 목표 8조 7218억 원, 영업이익 목표 4396억 원을 제시했다.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은 “중장기 전략의 빠른 실행과 통합의 시너지를 통해 시장의 성장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겠다”며 “건설기계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태광산업, 동성제약 인수 안전 의결

뷰티·헬스케어 영역 포트폴리오 확장

태광산업이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견 제약회사 동성제약을 인수한다.

태광산업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동성제약 인수 안전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성제약은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등을 생산하는 중견 제약회사다.

태광산업은 동성제약 인수를 계기로 기존 화학·섬유 중심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뷰티·헬스케어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화장품·생활용품 사업 진출을 선언한 태광산업은 최근 코스메틱 전문법인 ‘실

(SIL)’을 설립하고 동성제약을 인수함으로써 화장품을 넘어 제약·염도제·더마 및 헤어케어 영역을 아우르는 ‘뷰티·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태광산업은 동성제약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중장기 성장 동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태광산업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연합자산관리와 협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연합자산관리가 투자 중인 피코스텍 등을 통해 생산 제품의 외주(ODM·OEM) 전환 검토 및 생산라인 최적화를 추진하고, 판매관리비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그룹, 생산현장 로봇 자동화 속도

야스카와전기 업무협약 체결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3대 산업용 로봇 제조사인 야스카와전기와 협력해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의 주력 제품인 구동모터코어 생산현장에 로봇 자동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이날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천안사업장에서 심민석 포스코 DX 사장, 김상균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사장, 야마다 세이코 한국야스카와전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모터코어를 품질검사 측정기로 이송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품질 등급별로 자동 분류하는 로봇 시스템을 국내 천안·포항 사업장은 물론 폴란드·멕시코·인도 등 해외 공장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야스카와와의 3자 협력을 강화해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된 피지컬 AI 기반 로봇 자동화를 그룹사뿐 아니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포항공장 구동모터코어 스테이터(Stator) 생산라인에서 야스카와로봇이 생산된 제품을 품질검사 측정기로 이송하고 있다.

/포스코DX

라 대외 산업현장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